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각하기 위하여

정윤경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화폭에 담아낸다.
그녀의 작품 속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과 감정, 생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다. **editor** 장세현 **photographer** 김민은

16년간의 긴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정윤경 작가. 그녀의 하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비로소 시작된다. 오전 8시쯤 작업실에 도착해 애정하는 음악을 감상하며 마음을 깨우는 시간은 매일 반복되는 작업 전의 워밍업이다. 하얀 캔버스를 가만히 바라보기도 하고,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든 끄적이기도 한다. "저는 작업하는 과정을 사냥에 비유해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숲속이나 들판 한가운데서 감각에 걸려드는 것을 낚아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깊은 바다 속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리는 낚시의 과정 같기도 하고요." 정윤경 작가는 그만의 기억과 감정을 선과 색으로 표현하며 그림을 그려나간다. 영국에 머물던 때 코로나19 록다운으로 작업실에 갈 수 없던 동안에는 휴대폰 화면에 손가락으로 그려낸 선들을 틈틈이 캔버스에 옮겨 담으며 작업을 이어 나갔다. 이렇게 탄생한 'Finger Spell' 시리즈는 말 그대로 손가락 끝으로 흘려 보낸 감정들이 캔버스로 번져 나가 구현된 결과물이다. 아크릴 물감과 오일 스틱, 콜라주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일파스텔과 목탄 등은 늘 그녀 곁에서 함께하는 벗이다. 이외에도 스펀지, 트레싱지, 손가락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 작업 도구들은 표현의 한계를 넓혀준다. 그녀의 작업은 특정한 주제를 정해두고 시작되지 않는다. 감정과 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추상의 이미지들을 바라보며 과정을 되짚고, 거슬러 올라간 시간 속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낸다. 이는 내면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는 그녀만의 의식이다.

작가 정윤경의 순간들

#삶의 여정이 담긴 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에 아이가 작업실에 놀러 와 그려 두고 간 그림을 걸어두었다. 엄마를 닮은 걸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해외 생활을 하며 모은 그릇이나 장식품들은 한곳에 모아뒀다. 물건 하나하나마다 기억과 추억이 담겨 있어 더 소중하다.

"한국에 돌아오니 비로소
내 집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분에 작업에만 더 몰입할 수 있게 됐어요."

#일상 속 여유

작업 전후로 책을 읽으며 캔버스 위에
표현된 감정의 해답을 찾아보곤 한다.
새로운 영감이 필요할 땐 즐겨 가는 집 근처
'헬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

#작업의 희열을 느끼는 순간

작업 도중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낯선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더 탐험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그 덕분에 새로운 시도를 계속할 수 있다.

작가 정윤경에게 묻고 답을 들었다

Q *오랜 해외 활동 이후 귀국하셨어요. 국내에서의 생활과 작업 활동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작업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거리를 거닐 때도 비로소 내 집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작업에만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사용하던 재료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 고민이긴 하지만, 전시의 퀄리티나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없이 만족스럽습니다.

Q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죠? 작가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른 아침 아이를 등교시켜야 해서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덕분에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오전 일찍 작업실에 나가요. 커피를 마시거나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위한 워밍업을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캔버스를 바라보기도 하고, 무엇이든 계획 없이 끄적이기도 해요. 사냥을 떠날 땐 뭐가 잡힐지 모르고 길을 떠나잖아요. 작업의 과정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Q *사냥으로 비유하니 어쩐지 이해가 가요. 보통 주제를 정하고 작업을 시작하시나요?* 저는 질문을 던지거나 주제를 정하기보다 결과나 과정으로부터 역추적해 제 감정을 유추하는 방식을 이어오고 있어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저와 작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유기체가 되어 자유롭게 번져나가는 과정이 더 즐겁게 느껴지거든요.

Q *하나의 작업 안에서도 다양한 재료와 여러 겹의 레이어가 느껴져요. 작업엔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세요?* 아크릴 물감과 오일 스틱으로 컬러를 표현하고, 오일파스텔, 목탄, 콘테, 색연필 등으로 콜라주 작업을 더해요. 다양한 종류의 붓과 트레싱지, 종이나 스펀지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영국에서의 록다운 시기에는 손가락을 이용하기도 했죠. 그때의 작업을 통해 예전의 모노톤 작업에서 더 대담한 컬러와 형태를 실험하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Q *그때 탄생한 시리즈가 바로 'Finger Spell'이죠? 팬데믹 시대에만 일어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사건 속에 태어난 작품들이네요. 그때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당시의 영국은 도시 전체가 봉쇄되는 록다운이 시행 중이었어요. 외출에 엄격한 제한을 받다 보니 거의 집에만 머물러야 했죠. 그러다 우연히 휴대폰으로 찍어둔 작업 위에 손가락으로 선을 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들을 작업실에 갈 수 있는 날 캔버스에 옮겨 담았죠. 정말 암울한 시기였지만 작품 속에는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담아냈어요. 어쩌면 기억과 감정을 담아내는 제 작업에 가장 잘 맞는 시리즈이기도 해요. 제한된 작업 공간과 이동 환경이라는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요.

Q *작업을 하시며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으세요? 실험적인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다고 느낀 감정을 오롯이 이어 나가며 만들어낸 작업은 스스로도 매우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다른 작업으로 옮겨가며 가끔 처음 느꼈던 감정이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 찾아와요. 다시 떠올려 보려 해도 지나가버린 감정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럴 땐 잠시 패닉에 빠지게 되기도 하지만 며칠 동안 작업과 거리를 두고 있다 보면 또 다른 감정들이 저를 찾아와 작업을 이어나갈 원동력이 돼요.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Finger Spell' 시리즈처럼 실험적인 작업들이 이어질까요?* 감정이 흘러가는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와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된 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싶어요. 더 많은 분들과 공감하기 위한 전시 계획도 잡혀 있어요. 아트 바젤 홍콩에 참여한 데 이어서 7월에는 모스크바에서 개인전을 계획 중이고, 9월에는 'Kiaf SEOUL(한국국제아트페어)'에도 단독 부스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더 많은 분들과 만나 작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L